

불로소득자본주의와 그 너머 - 피케티 이후의 크리스토퍼스

이 병 천 (강원대학교 명예교수)

■ 요약 ■

토마 피케티는 불평등이 극심하고 불로소득이 번창하는 시대상황에서 자산불평등과 세습자본주의를 비판하는데 획기적으로 기여했다. 피케티 이후 불로소득자본주의를 주제로 한 연구들 중에서 특히 브렛 크리스토퍼스의 책이 크게 주목을 받았다. 그의 책은 새로운 개념화와 이론 전개, 시스템·제도·정책의 작동에 대한 깊이있는 경험적 분석, 그리고 불로소득자본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새로운 대안정책의 제시 등 여러 측면에서 불로소득자본주의의 정치경제학을 새롭게 구성했다고 해도 좋을 만큼 충실한 내용을 갖고 있다. 크리스토퍼스의 연구는 주로 영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한국 연구에 곧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개별분야에 치우친 부문 연구의 한계를 넘어 한국 불로소득자본주의의 총체적 구조를 밝히고자 할 때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불로소득자본주의와 그 너머
- 피케티 이후의 크리스토퍼스1)

시장, 자유, 불평등, 불로소득- 스미스, 프리드먼, 피케티

경제학의 세계에는 보통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여러 신화들이 있다. 주류 신고전파 경제학은 배울 것도 많지만 이들 신화 때문에 열심히 배울수록 편견에 사로잡히게 될 우려도 있다. 1번으로 꼽아야 할 것이 시장에 맡기면 경제적 자유가 보장됨은 물론 성장이든 분배든, 경제 만사가 술술 잘 풀린다는 신화다. 이 문제에서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의 생각은 매우 양면적이다2). 그에 따르면 자연적 자유가 보장된 자유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 사익의 추구로 공익이 실현되는 자기조정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스미스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그는 불로소득경제과 특권체제, 대기업의 독점을 비판했다. 그리하면 한국의 세습자본주의, 국정농단까지 서슴치 않은 이재용의 삼성을 비롯한 재벌의 세습과 독점적 지배, 경제력집중을 강도 높게 비판했을 것이다. 이 지점에서 스미스가 오늘의 피케티와 연결선(가는 선이라 해도)이 있다고 보면 너무 무리한 이야기일까. 스미스는 중소기업이 아래로부터 피어날뿐더러 노동자 대중이 생활임금을 받음으로써 사회적 분업이 확장되고 수익체증이 일어나는 ‘국민적 분업권’(分業圈)으로서의 자유시장권, ‘국민의 부’3) -

- 1) 이 글의 초고를 리뷰해준 서울사회경제연구소 편집위원들께 감사드린다. 소중한 논평 덕분에 거친 원고가 다듬어졌다.
- 2) 올해는 스미스탄생 300주년이 되는 해인데 스미스의 이중성 또는 모순에 대해서 그간 많은 논의들이 있어왔다. 국부론내부의 딜레마, 국부론과 도덕감정론사이 또는 부(wealth)와 덕(virtue) 사이의 간극 문제가 대표적이다.
- 3) 스미스의 저서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는 통상 『국부론』으로 번역되고 있는데 오해의 우려가 없지 않으며 Nation과 State의 차이에 주목해야 한다. 일본학자 우자와 히로후미에

국가의 부만이 아니라가 역동적으로 창출되는 정의로운 열린 시장을 옹호했다4).

반면 밀턴 프리드먼의 경우는 전혀 류가 다르다. 자본주의 발흥기 사회적 분업권에 기반해 반(反)특권, 반독점의 진보적 자유주의 사상을 펼친 스미스 이후 고삐 풀린 자본주의의 온갖 폐해와 모순이 드러난 이후에도 신자유주의의 대부이자 낙수효과경제학의 원조격인 프리드먼은 천연스레 이렇게 말한다. “자본주의가 더 심화된 국가일수록 자산소득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적어지고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 커진다5). 프리드

따르면 Nation이라는 단어는 “한 나라의 국토와 그 안에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총체를 가리킨다. 즉 국토와 국민을 총체적으로 파악한 것으로서, 통치기구를 의미하는 State(국가)와는 다르며 때로는 국가와 대립적인 개념”이다(우자와 히로후미, 사회적 공통자본의 경제학, 이병천 외 역, 진인진, 2019, p.29).

- 4) 한국의 서양경제사상 수용사에서 이 지점에 주목하며 스미스를 적극적으로 평가한 대표적 학자는 고정운형교수다. 그는 박현채와 함께 ‘민족경제론’을 주창했는데 스미스의 진보적 자유주의 사상이 신자유주의와는 무관한 것이라 보았다(스미스에 대한 그의 글은 1970, 1972년에 쓰여졌다). 또한 프리드리히 리스트의 후발 국민주의 경제학은 국가지상주의와 아류제국주의로 나아갈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경계하면서 스미스의 자유주의를 훨씬 높이 평가했다(정운형, 『서양경제사상사연구』, 창작과 비평사, 1981, pp.11-57, 131-153). 그는 심지어 박현채에도 리스트적 요소가 없지 않다고 지적한다. 리스트를 보는 이 비판적 시선은 한국 개발주의의 모순을 인식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함축을 갖는다(이병천, 학원경제학의 한 해석, 서울사회경제연구소편, 학원선생의 경제사상과 경제이론, pp.102-103,111; 한국자본주의 만들기, 해남, 2020,p.13). 리스트뿐만 아니라 케인스에 대한 정운형의 평가도 썩 우호적이지는 않다. 스미스의 경우 필수품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상품만이 아니라 “그 나라 관습상, 최하층민을 포함해 점잖은 사람이 가지지 않으면 품위를 잃는(indecent) 모든 상품”을 가리킨다. 경제사상사에서 스미스의 정의로운 시장경제권의 사고는 이후 알프레드 마셜, 에일린 영으로 이어진다. 다음을 참고할 것. 사이트 오사무, 『비교경제발전론』, 박이택 김승미역, 해남, 2013, p.46-63 ; 이병천, 외부경제, 사회적 분업, 산업세계의 다양성-마셜의 경제학원리와 숲의 경제학, 경제발전연구 2016, 22권 1호.

먼은 칠레 피노체트 독재정권을 찬양했다. 피노체트는 학살과 고문, 온갖 반인륜적 만행을 저질렀음에도 프리드먼의 눈에는 자유의 수호자로 비쳤다. 프리드먼-시카고보이-피노체트 체제 아래 대중은 보이는 주먹과 보이지 않는 주먹으로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 모두를 박탈당한 반면에, 보장된 것은 소수 특권층의 자유, 가진 자들의 '선택할 자유'였을 뿐이었다. 이것이 프리드먼이 말하는 자유라는 것의 실상이었다.

프리드먼식 자유와 신자유주의는 결코 강건 너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더불어사는 경제민주화⁶⁾와 경제 정의는 죽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끊임없이 '자유'의 노래를 부르지만 알고 보면 그 실상은 불로소득자와 특권대기업의 '선택할 자유'를 확고히 보장하는 것이며 다수 대중에게는 허구적 자유에 불

과하다. '이권카르텔' 척결을 주장하는데 막상 역사를 거스르는 자신들의 카르텔-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및 강제징용해법 관련 한일정권 간 카르텔을 포함해서-은 공고히 하면서 노조 때리기와 노동탄압으로 인기몰이를 하는 것이다. 재정건전성과 작은 정부에 대한 시대착오적 맹신으로 나라경제의 활력과 민생을 마구 해치고 있는 상황이다. 프리드먼의 망령은 이처럼 거대한 퇴행을 도모하는 대통령의 위태로운 길에 사상적 스승 역할을 하고 있다⁷⁾. 마지막으로 역U자 곡선(쿠즈네츠 곡선)으로 잘 알려져 있고 근대적 경제성장 개념도 제시했던 사이먼 쿠즈네츠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그에 따르면 자본주의의 초기 전환기에는 불평등이 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차 불평등이 약화된다. 피케티는 자본주의의 역사와 불평등 추이에 대한 이 같은 쿠즈네츠의 견해를 정조준하여 이론적, 실증적으로 비판했다⁸⁾.

불평등이 극심하고 불로소득이 번창하는 상황이 주요한 시대문제로 부상한 때, 토마 피케티는 허구적 자유시장 이야기들을 깨뜨리고 자산불평등과 세습자본주의를 비판하는데 획기적으로 기여했다⁹⁾. 그에 따르면 고삐 풀린 자본주의에서는 기업가가 필연적으로 불로소득자가 되는 경향이 있으며 자본은 한번 형성되면 산출의 증가보다 더 빠르게 스스로를 재생산한다. 생산적 기여로 버는 경제에서 자산 소유로 버는 경제로 변질하고 부를 세습화한다는 것이다. 피케티는 $r(\text{자본수익율}) > g(\text{경제성장율})$ 부등식을 자본주의의 근본 모순으로 제시했으며 실질적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이루려면 자본의 민주적 통제가 필수적 대안으로 요구되고 이를 통해 자본수익률을 성장을 이하로 낮추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5) 밀턴 프리드먼, 자본주의와 자유, 심준보 변동열 역, 청어람, 2007(1962), p.262.
6) 경제민주화는 이제는 고인이 된 학현 변형운선생이 당신의 필생을 걸어 초지일관 추구했던 지론이기도 했다. 학현은 한국의 대표적 '마살리언'으로서 중소기업론의 독보적 전문가 이경의와 함께 한국에서 '비주류 마살'의 존재를 알리고 연구하는 데 헌신했다. '냉철한 머리와 뜨거운 가슴'을 지향한 학현경제학에는 사후적 분배에 앞서 사전적 분배정의의 시선이 있다. 나의 견해로는 마살을 보는 학현 및 이경의의 인식과 스미스를 보는 정윤형의 인식은 반특권적이며 다중스케일에서 내발적인 사회적 분업의 확장론, 그런 의미의 경제민주화와 경제정의의 깃발을 세웠다는 점에서 중요한 경제사상적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는 우리가 이어받고 새로움을 더해야 할 학현경제학과 한국 민족경제론의 귀중한 유산이자 진보경제학의 혼이 아닐까 싶다. 많은 것이 변한 오늘날 한국의 진보경제학은 얼마나 안녕한지, 우리가 물려받아야 할 유산, 특히 경제민주화사상의 유산이 있다면 어떤 무엇이 있는지, 우리 경제학은 어떤 학술적 축적기반과 맥락 위에 서 있는지 자문하게 된다. 나의 학이사(學而思) 경제학 공부 길은 이 물음을 놓친 적이 없으며 추상적, 탈역사적 시장이 아니라 언제나 공간과 시간이 있고 갈등으로 점철된 역사적 시장권과 경제민주화, 경제정의의 살림살이를 생각해 왔다는 점에서 사상사적으로 변형운, 정윤형, 박현재의 길 그리고 스미스, 마살, 폴라니, 마르크스, 케인스가 걸어간 길, 그 복합적 계승과 비판적 진화의 길위에 있다.

7) 이병천, 무책임한 극단주의- 프리드먼과 윤석열, 경향신문, 2023.6.12. 더 정돈된 논문은 다음을 참고. 지주형, 윤석열 정부의 국가형태와 전략, 동향과 전망, 118호, 2023 여름.
8) 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 장경덕 외 역, 글항아리, 2014, pp. 20-27.
9) 토마 피케티, 같은 책.

피케티 이후의 크리스토퍼스

토마 피케티 이후에 가이 스탠딩(G. Standing)의 『자본주의의 부패』, 마리아나 마추카토(M. Mazzucato)의 『가치의 모든 것』, 앤드류 세이어(A. Sayer)의 『왜 우리는 부자를 부양할 수 없나』를 비롯해 불로소득자본주의를 주제로 한 중요한 연구들이 제법 나왔지만 그 중에서도 브렛 크리스토퍼스(B. Christophers)의 『불로소득자본주의』(rentier capitalism)¹⁰⁾가 크게 주목받았다. 그의 책은 새로운 개념화와 이론 전개, 시스템·제도·정책의 작동에 대한 깊이 있는 경험적 분석, 그리고 불로소득자본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새로운 대안정책의 제시 등 여러 측면에서 불로소득자본주의 정치경제학을 새롭게 구성했다고 해도 좋을만큼 충실한 내용을 갖추고 있다. 크리스토퍼스의 불로소득자본주의가 나오므로써 피케티 이후 자산불평등 및 불로소득주의에 대한 비판이 한 단계 새롭게 올라섰고 경제사상사를 다시 돌아볼 기회도 생겼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로써 신자유주의 지배체제의 한복판을 차지하고 있는 불로소득자본주의의 이해는 크리스토퍼스의 책을 빼고 말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더구나 그의 책은 학술적 깊이가 있으면서도 잘 읽힌다. 깊이 있는 학술적 내용을 독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평이하게 서술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불로소득자본주의』에서 크리스토퍼스는 그런 일을 해 낸 것 같다.

저자는 통상적 분과학문 분류로 보자면 경제지리학자로 현재 스웨덴 옘살라 대학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가 특히 집중해온 연구 분야는 주택과 도시, 화폐와 금융 분야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금융의 본질, 경쟁과 독점 등 기존의 인식이나 개념에 대해 금기를 깨는 도전적 연구들을 꾸준히 선

보이며 시장·경제·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에 대해 본질적 질문을 던져왔다. 『불로소득자본주의』 출간이전의 대표 저작으로는 『새로운 인클로저-신자유주의 영국에서 공공토지의 전유』(2018)를 꼽을 수 있는데 이 책으로 아이작 도이처상을 받은 바 있다. 자본주의 발전에서 경쟁과 독점의 문제를 파고든 『거대한 평준화-법정에서의 자본주의와 경쟁』(2016)도 화제의 책으로 주목을 받았다. 최신작으로 자산소유자만이 아니라 자산관리자들이 우리 삶과 사회를 주무르는 실상을 파헤친 책, 『포트폴리오에 담긴 우리의 삶-자산관리자가 세계를 지배하는 이유』(2023)¹¹⁾를 출간해 『불로소득자본주의』 이후 열정적으로 후속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크리스토퍼스 불로소득자본주의론의 내용과 의의

크리스토퍼스의 책이 갖는 가치와 의의는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저자는 자산을 역사적 자본주의의 무대 중심에 올린, 새로운 연구들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불로소득자본주의는 지대와 불로소득자에 의해 지배되는 경제체제일 뿐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의미에서 지대를 창출하고 불로소득자를 떠받쳐주는 자산을 중심으로 그 골격이 실질적으로 짜이고 조직되는 경제체제다.”(xviii). 이는 소득분배 범주에서 더 들어가 이를 규정하는 자산적 토대와 불로소득자들의 시계 및 선호, 그 능동적 자산운용 전략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자산의 동전의 뒷면이 부채라는 점도 같이 생각해야 한다. 자산경제와 부채경제는 같이 간다. 저자는 오늘의 자산중심 자본주의를 ‘대차대조표자본주의’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손익계산서가 우선시되는 생산적 자본주의 또는 소득기반 자본주의와 대비된다. 이에 따라 자본주의 시스템의 방정식도

10) Christophers B. *Rentier capitalism-Who owns the economy and Who pays for it?*, Verso, 2020.

11) 이 책의 출간을 기념해 데이비드 하비가 좌장이 된 토론회가 열렸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

둘째, 저자는 불로소득자본주의론의 구성에서 자산의 소유, 통제에 확고히 기반을 두면서도 이와 함께 시장조건, 즉 시장지배력의 문제도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자연적·인위적 희소성에 바탕을 둔 자산의 소유와 통제만으로 불로소득 창출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시장경쟁이 극심한 와중에 새로운 혁신까지 일어나면 시장을 빼앗겨 자산의 소유, 통제만으로는 제대로 불로소득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로소득자본주의의 작동에는 자산의 소유, 통제와 함께 반드시 일정한 시장지배력과 독점적 권력이 따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¹²⁾. 이 같은 생각에서 저자는 지대를 다음과 같이 확장된 의미로 정의한다. “경쟁이 제한적이거나 부재한 조건에서 희소자산의 소유 또는 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xxiv)이 바로 지대이다¹³⁾.

이처럼 자산과 독점, 이에 기반을 둔 지대의 확장된 정의가 크리스토퍼스가 불로소득자본주의론의 초석을 세우는 개념들의 토대에 해당하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저자가 피케티를 넘어서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1세기 자본』에서 피케티는 자본개념에 물적자본, 유형자산, 무형자산 일체를 포함시키고 그가 자본소득이라 부른 지대 속에는 임대료, 이자, 배당금, 특허권료뿐만 아니라 이윤까지 포함

된다. 나아가 피케티는 자본의 소유·통제에 집중했을 뿐이고 시장경쟁과 독점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았다. 반면 크리스토퍼스에 이르면 생산적 자본을 제외한 불로소득 지향 자산이 중심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시장지배력은 불로소득의 추출에서 대단히 중요한 조건이 아닐 수 없다.

셋째, 크리스토퍼스 버전의 불로소득자본주의는 자산의 소유, 통제와 독점적 시장지배의 양날개에 이어 자산과 지대의 다양성이라는 생각으로 나아간다. 그에게서 자산 유형론은 추상적 이론에서 구체적 현실로 내려오는 중요한 중간매개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한 자산 유형들을 발굴하고 그것에 기반해 다채로운 불로소득주의 양태를 파헤친 것이야말로 흔히 보기 어려운 그의 고유한 기여다. 저자는 영국 경우를 중심으로 일급 가지 핵심 자산유형을 식별해 냈는데 이는 통상적인 금융, 부동산뿐만 아니라 시야를 확장해 지식재산권, 디지털 플랫폼, 아웃소싱, 사회적 인프라, 자연자원 등 새로운 프론티어 분야까지 포괄하고 있다(표1 “현대 불로소득주의의 제형태” 참고). 책의 본론은 각 자산 유형들을 하나하나 살피며 그에 따른 특정한 지대추출 및 불로소득경제의 작동방식을 면밀히 보여준다.

넷째, 크리스토퍼스의 책이 독자들에게 불로소득주의의 구체적 현실 형태를 보여주는 또 다른 측면은 정책 부분이다. 저자는 불로소득자본주의에 대한 도덕경제적 비판도 물론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자신이 집중적으로 추구하는 작업은 정치경제적 비판이라고 말한다. 불로소득 지배체제를 뒷받침하고, 불로소득 공급에 따른 국가권력의 포획과 결탁으로 실현되는 구체적 정책의 분석과 비판은 정치경제비판에서 반드시 필요하며 이 책의 가치를 높여주는 핵심 대목이다. 저자는 민영화, 자유화와 규제완화를 통한 자산풀(pool)의 확장, 반독점·공정경쟁 정책의 무력화, 조세재정과 화폐금융정책을 통한 지대 수준의 상승,

12) 크리스토퍼스의 독점에 대한 이해는 독점도와 분배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킨 칼레츠키의 독점론과 주류경제학의 지대추구론 양쪽에 걸쳐 있다. 그가 명확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경쟁 제한을 통해 인위적으로 희소한 자산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병천 정준호 정세은 이후빈(서평 좌담), 불로소득자본주의의 정치경제학 - 브렛 크리스토퍼스의 연구와 한국에 주는 함의, 동향과 전망, 118호(여름), 2023, pp. 219-220 (이후빈 발언)을 참고할 것.

13) 그런데 크리스토퍼스는 rentier가 전적으로 기생충 같은 존재는 아니며, 그들이 얻는 소득이 모두 불로소득(uneared income)은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자산을 운용해 지대를 추출하는 과정에서는 통상 자산의 창출을 포함해 적지 않은 수고가 들어가기 때문이다(xxv-xxvi).

자산 자체의 가치를 높여주거나 안정화시키는 불로소득친화적 정책 등을 네 가지 정책기둥으로 꼽고 이 정책들이 각 자산 유형에서 어떤 식으로 실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보여준다.

저자에 따르면 위의 세부 정책들을 관통하면서 그 바탕에 있는 붉은 실과 같은 것이 자산의 소유·통제와 시장조정에서 독점적 지배이며, 이것이 자본과 노동, 대자본과 중소자본 간 권력불균형을 낳으면서 분배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거시경제 활력도 죽인다. 이 대목에서 크리스토퍼스의 불로소득자본주의론은 생산적 자본과 불로소득자 자본(rentier capital) 간의 대립을 주요 모순으로 바라보는 네오리카디언적 시선과 갈라서면서 피케티(P), 마르크스적 전통(M, 무엇보다 하비와 칼레츠키), 케인스적 전통(K)을 통합하는 시선을 드러낸다. 네오리카디언적 시선은 여러 논자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NR적인 일면적 시선과 PMK 통합적 시선 간에는 중대한 간극이 존재한다.

<표1> 현대 불로소득주의의 형태들

자산	자산통제 획득의 주요수단	주요한 소득흐름
금융	• 민간은행의 신용화폐 창조 • 1차 및 2차 시장에서 금융 자산 인수	• 이자 • 배당 • 자본이득
자연자원	• 광물권 소유자와 임대 계약	• 제품 판매
지식재산	국가 지식재산 관리처에 권리 등록(예: 특허, 상표)	• 제품 판매 • 로열티
디지털플랫폼	• 자체 발생	• 수수료 • 광고수입
아웃소싱	• 입찰 과정(다양함)	• 서비스 요금
사회적 인프라	• 국유기업의 사유화 • 정부의 면허 • 자체 발생	• 서비스 요금 • 면허료
토지	• 시장에서 인수 • 공공부문 토지의 사유화	• 토지지대

자료: Christophers(2020, xxxi).

불로소득주의를 넘어서- 전환을 위한 대안정책

이제 불로소득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정책의 문제로 넘어가자. 저자는 결론부분에서 포스트불로소득주의 사회경제로 가는 네 가지 대안정책 패키지를 제시한다. ① 반독점 경쟁 정책, ② 조세정책, ③ 산업정책 그리고 ④ 소유구조 재편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앞의 두 정책은 불로소득친화적 정책을 반전시키는 기본정책 기둥이다. 불로소득자 자본의 독점적 시장지배를 꺾는 일, 불로소득을 조장, 고무하는 특혜를 폐기하고 자산보유세를 정상화하는 일이다. 그런데 불평등감소 및 조세수입 확충과 함께, 내일의 대안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중요한 것은 자본운동의 흐름이 불로소득 추구에서 생산적 투자 및 혁신으로 흐르고 땀 흘리는 만큼 응분의 보상을 받도록 경제구조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수익률을 성장을 아래로 떨어뜨리는 정책기조를 강력히 밀고 가면서¹⁴⁾ 능동적으로 국가주도 산업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국가는 단지 시장실패 교정자 수준을 넘어 시장을 창조하고 시장의 틀을 새롭게 짜는 담대한 기업가적 국가가 되어야 한다. 금융 수단에서는 대표적으로 국영투자은행이 제시된다. 이런 부분에서 저자는 저명한 혁신이론가 마추카토의 견해를 불러들인다(pp.394-396). 새로운 전환적 책임국가는 생산적 산업투자, 대중의 공유필요 충족을 위한 사회적 투자, 그리고 기후위기극복을 위한 녹색투자라는 삼중의 투자국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아무래도 가장 근본적인 대안은 불로소득자본주의 근간을 타격하는 자산소유구조의 획기적 재편일 것이다. 이를 통해 경제권력구조를 재편하고 다시금 민주주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저자가 제시하는 것은 한편으로 에너지, 교통, 의료, 토지 주택, 화폐금융, 디지털 플

14) 나아가 성장을 넘어, 무한한 욕망의 질주를 넘어 '충분성'(sufficiency)을 지향하는 대안경제로의 전환 길에서 영리기업의 수익을 감소는 불가피하다. 이는 쟁투적 과정일 수밖에 없다.

랫폼 등에서 국공유 자산의 재구축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체 부의 재창출과 지역순환경제 재생이다. 이를 통해 공공사(公共私) 세 가지 축으로 나아가는 다원적 혼합소유의 생태계를 제시한다.

이상과 같은 대안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현된다면 국가가 매우 능동적, 계획적으로 관여하면서도 경제적 자원이 획기적으로 분산되고 민주적 통제가 실현된 사회경제가 출현할 것이다. 세발로 가는 이 대안을 여전히 자본주의라고 부를 수는 있겠고 내적 긴장도 소멸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불로소득주의가 자본주의의 본성인 한 그것이 뿌리 뽑히고 경제자원의 분산과 민주적 통제가 획기적으로 실현되며 국가가 시장실패 교정자 역할을 넘어 공공적 책임을 다하는 미래의 ‘덜 자본주의적인’(less capitalistic) 체제는 이제까지 우리가 아는 자본주의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pp.408-409).

한국에 주는 함의, 불로소득주의와 기후·생태 위기

크리스토퍼스의 『불로소득자본주의』의 경험적 분석 부분은 주로 영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론적 부분 또한 아무래도 영국을 기반으로 한 경험의 영향이 녹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의 연구를 곧바로 한국 연구에 가져올 수는 없다. 한국의 연구라면 외국 연구의 수입과 무분별한 적용을 넘어 한국의 맥락과 조건에 정확히 조준된 연구를 하면서 자신의 전환경로를 개척해야 한다. 그럼에도 크리스토퍼스의 책이 오늘날의 불평등자본주의 연구에서 핵심개념으로 자산과 독점을 함께 무대 중심에 올린 것, 자산 및 지대의 다양한 유형과 불로소득친화적 정책패키지를 중간 디딤돌로 삼아 구체적 현실분석으로 나아간 것, 그리고 불로소득자본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네 가지 대안정책 기둥을 제시한 것 등은 우리에게

게도 던져주는 바가 크다.

이런저런 개별분야에 치우친 부문 연구의 한계를 넘어 재벌지배 세습자본주의에 부동산, 금융, 디지털 플랫폼 등의 불로소득주의가 겹쳐 있는 한국형 불평등자본주의의 전반적 구조를 밝히고자 할 때 크리스토퍼스의 연구가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늘날의 기후·생태 해명과 전환 대안의 모색에서도 불로소득자본주의 연구가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누군가가 불로소득을 번다면 현재는 물론 미래의 다른 이들이 실질가치를 생산해 이를 떠받치는 노고를 감당해야 하고 그 비용은 필경 생태계에도 전가된다. 리처드 토니는 일찍이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일하지 않고 소유만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필시 다른 누군가의 수고덕에 부양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사회가) 장려하기에는 너무나 값비싼 사치다”¹⁵⁾

불로소득자들은 투자자와 소비자로서 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직간접적 비용 전가를 통해 기후·생태위기를 악화시킨다. 부자들이 화석 기업과 자연자원에 투자를 하고 심지어 개인 제트기를 타고 돌아다니며 근사하게 녹색해법을 주장한다거나¹⁶⁾, 일본의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를 지지 고무하면서 녹색전환을 떠든다거나, 이와 또 달리 불로소득자 심성이 널리 퍼져 너도나도 불로소득자, 건물주가 되고 싶어하는 등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미래를 식민화’¹⁷⁾하는 자본주의와 권력양식이

15) Tawney R.H. 1920, *The Acquisitive Society*, Mineola, NY: Dover Publications, 2004, p.87

16) 반다나 시바(인터뷰), “개인제트기 타는 사람들이 녹색해법 제시하고 있다”, 경향신문, 2023. 6. 27.

17) Mitchell T., “Uber Eats: How Capital Consumes the Future,” in Bruno Latour and Peter Weibel, eds, *Critical Zones: The Science and Politics of Landing on Earth*, 2020: Soddy F., *Wealth, Virtual*

지배하고 있다면 결코 기후·생태위기를 극복하는 집단적 힘이 나오기는 어렵다. 오늘날 거대한 전환시대의 논리는 자본주의 일반을 넘어 ‘복잡한 자본주의’ 얼굴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한다¹⁸⁾. **SIES**

| 약 력 | 이병천 교수는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강원대학교 경제·정보통계학부 명예교수다. 한국사회경제학회 회장, 참여사회연구소(참여연대부설)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 반년간지 [시민과 세계] 공동편집인, 노무현대통령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Wealth and Debt, Britons Publishing Company, 1926. 노벨화학상을 수상했으며 영리자본의 비판가 베블런과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프레더릭 소디는 가상적 경제, 실질적 경제, 사회적 물질대사로 이루어진 자본주의 3층 구조론을 보여주고 생태적 위기가 생산적 화석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불로소득주의에 기반한 가상적 경제층위에 의해서도 야기된다고 역설했다. 피케티가 $r(\text{자본수익률}) > g(\text{경제성장률})$ 부등식을 말했지만 소디는 더 근원을 파고든 자본주의 근본모순론을 제시한 셈이다. 간단한 소개는 이병천, “생태경제학, 마르크스 이후의 소디”, 경향신문, 2023.7.10. 참고.

18) 크리스토퍼스의 책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는 다음 참고. 이병천, 불로소득자본주의 어떻게 볼 것인가, 시민과 세계, 40호, 2022; 이병천 정준호 정세은 이후빈(서평좌담), 불로소득자본주의의 정치경제학 - 브렛 크리스토퍼스의 연구와 한국에 주는 함의, 동향과 전망, 118호(여름), 2023.